기아차 또 부분파업… '포프모빌' 생산차질

22일 이어 28일 예정··· 통상임금 수용하라 사측 압박 내수부진·환율하락에 쏘렌토 등 신차 효과 빛 바랠듯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 22일에 이어 28일 두 번째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포프모빌' 바람을 탄 광주공장의 쏘울과 출시하자마자 2만여대의 계약을 이끌어낸 소하리공장의 새 카니발, 출시를 앞둔 화성공장의 새 쏘렌토는 당분간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25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노조는 28일 총 6시간의 부분파업을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내린 27일 부분파업, 29일

총파업의 파업지침을 수임할 것인지를 놓고 25일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사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가 제시한 28일 전체 파업안과 금속노조 지침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각 노조의 특성 및 지부별 사정 때문에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현대·기아차그룹 사의 현대차, 기아차 노조를 비롯, 계열사 노조 21곳이 참여해 만든 모임이다. 노조는 26일 2차 쟁대위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시간이 촉박한 27일 보다는 연대 회의가 제시한 28일 현대·기아차 노조의 전체파업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 다.

〈교황이 탄 차 쏘울〉

통상임금이라는 새 변수가 생긴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생산차질 및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최악의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올해 초 1050원으로 설정했 던 원·달러 환율이 무너지며 수익성 악화

L2601-0WD

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기에 새 카니발과 쏘렌토 출시로 하반기 신차효과를 노렸던 기아차에 파업 장기화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한국지엠과 쌍용차, 삼성전자 등 이미 많은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에 합의한 만큼 사측이수용해야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2일 파업으로 차량 500여대의 생산차질과 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8일 파업에 들어갈 경우 추가로 750대의 생산차질 및 12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근르를 크기 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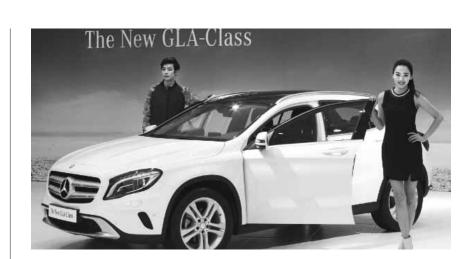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소 코스피 2060.89 (+4.19)

→ 금리 2.57%(-0.02)

▼ 코스닥 564.40 (-1.95)





벤츠, 신차 '더 뉴 GLA-클래스'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5일 프리 미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인 '더 뉴 GLA-클래스'를 출시했다.

신차는 벤츠의 5번째 SUV모델로,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총 400kg 정도인 차체의 73%가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철로 구성돼 있어 도심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모델 출

시에 앞서 총 24대의 차량을 9개월간 각기 다른 상황에서 180만㎞ 이상의 내구성 시험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더 뉴 GLA 200 CDI'와 4기통 엔진을 탑재한 '더 뉴 GLA 45 AMG 4메틱' 2가지 라인으로 출시되며 GLA 200 CDI가 이번에 먼저 출시된다. GLA 200 CDI의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이며 복합연비는 16.2km/ &다. 가격은 4900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중기청,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독려

중소기업청이 추석을 앞두고 각계각 층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는 활 동을 벌인다.

중기청은 25일 올해 추석 상품권 판매 목표를 지난해(1352억원)보다 7% 늘어 난 1450억원으로 정하고 8월까지 실시하 기로 했던 개인 판매 10% 특별할인 행사 를 9월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를 9월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파라치 제도를 / 중기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에 온누리 /임동률기

상품권을 활용한 명절 휴가비 지급을 요 청하고,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연 100만원 이상 상품권 구입을 독려하 는 '백만누리 캠페인'을 펼친다.

중기청은 또 상인들이 상품권을 할인 받아 산 뒤 이를 환전해 차익을 보는 부 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파 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작황 호조 사과·배 가격 작년 추석과 비슷

채소가격도… 햅쌀·쇠고기 등 축산물은 비싸

농어촌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기계 무상 수리해 드려요"

추석이 예전보다 이르지만 과일과 채소 도매가격은 지난해 성수기(추석전 2주간) 와 거의 비슷하고, 햅쌀과 쇠고기 등 축산 물 가격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어촌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5일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가격 전망' 자료에서 "추석전 2주간 사과와배 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줄지만 작황호조로 평년보다는 늘어나

기 때문에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작년보다 0. 6%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7% 많은 5만2500t 내외로, 배도 작년보다 1.2% 감소에 그친 5만5500t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 홍로 가격은 작년 성수기(5만7320원)보다 떨어진 상품 15kg 한 상자에 5만~5만5000원에, 신고 배는 작년 성수기(4만6000원)와 비슷한 상품 15kg 상자에 4만4000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석 성수기 배추와 무의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작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보인다. 배추(상품 10kg)는 6500~7500원, 무(18kg)는 8000~9000원으로 전망됐다. 작년 추석 성수기 무와 배추 가격은 1만80원과 1만3065원으로 올해보다 비쌌다. 다만 추석용 햅쌀(20kg) 가격은 8월 중순 이후 이어진 비로 수확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3.9% 오른 5만6810원으로예상됐다.

25일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에서 열린 농기계 무상점검 행사에서 한 농민이 트랙터를 점검받고 있다. 대농농기계와 국제농

기계, 동양농기계 등 4개 농기계제조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조합 농민의 경운기와 예취기 등 100여대가 무상 점검 혜택을 받았다.

에ሪ됐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올라갈 전망이다. 쇠고기(한우 1등급 1kg)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작년보다 약간 높은 1만5000~1만6000원으로 예상됐다. 작년에는 1만4970원 수준이었다. 돼지고기(탕박지육 kg당)의 도매가격은 고온에 의한 출하지연으로 공급량이 줄어 4300~4500원 안팎에서 거래될 것으로 관측됐다.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6~7월 급등했던 계란 산지가격(10개)은 안정을 되찾아 작년보다 1.6% 오른 1450~15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업관측센터는 "사과와 배는 추석 1주 일을 앞두고 출하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 여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 했다.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고속, 추석 연휴 고속·직행버스 증차 운행

금호고속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임시 버 스를 증차하고, 특별운행에 나선다.

25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주말이 포함됨에 따라 9월5일부터 11일까지 고속버스는 총 3600회, 직행버스는 1440회 증차한다. 이는 평시 대비고속은 일 평균 600회, 직행은 300회의 버스를 증차한 것으로, 귀성·귀경객들의 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호고속은 현재 광주·전남권을 운행

하는 직행버스 및 임시버스를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고속 및 직행 버스표를 언제든지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발권에 따른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PC를 통한고속버스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 코버스 (www.kobus.co.kr)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코버스 모바일 사이트 (m.kobus.co.kr)을 이용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